



GWANGJU
FOOTBALL CLUB

2012 No.10
GWANGJU F.C
Matchday Program

VIEW

발행처 : 광주FC 사무국,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23-2 월드컵경기장 내 2층 TEL : 062) 373-7733

행운의 숫자 '3'
광주 FC 3월 3승 제물 3팀과 30만전



GWANGJU
FOOTBALL CLUB

VS



부산아이파크

2012.08.04 19:00 광주월드컵경기장

WWW.GWANJUFC.COM TWITTER @GWANGJU_FC FACEBOOK @gwangjufc me2day /gjfc0

Hyundai Oilbank K-LEAGUE 2012

○ 광주FC 홈경기 일정

| 일자 | 시간 | 대진팀 |
|----------------|-------|---------|
| 2012.08.08 (수) | 20:00 | 상주상무피닉스 |

| 일자 | 시간 | 대진팀 |
|----------------|-------|-------|
| 2012.08.18 (토) | 19:00 | 대전시티즌 |

‘무패가도’ 첫 제물은 부산

광주가 분위기 전환을 시도한다. 광주는 8월 부산전을 시작으로 상주, 제주, 대전, 포항, 경남과 6경기를 치른다. 공교롭게도 첫 3경기는 올 시즌 개막과 함께 광주에 3승을 헌납하며 리그 선두로 올려줬던 팀들이다. 3월 이후 1승을 챙기는데 그친 광주가 다시 한번 승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셈. 지난 부산과의 맞대결에서는 임선영(도움 김수범)과 주앙파울로(도움 복이)가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3-4-1-2 포메이션으로 수비에 집중하며 김동섭과 복이를 활용해 역습을 노리던 광주는 전반 9분만에 골 폭죽을 터뜨렸다. 김수범의 패스를 받은 임선영이 페널티박스 오른쪽으로 침투했고, 각이 없는 상황에서 절묘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든 것. 후반 7분 부산의 반격에 무너진 광주는 곧바로 특급조커 주앙파울로를 투입했고, 그라운드를 밝은지 7분만에 부산의 골문에 세기 골을 넣었다. 빠른 발을 이용한 드리블과 슈팅 감각이 돋보인 플레이였다. 당시 출전했던 선수들은 필승을 각오로 다시 한번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 150여 일만에 재회하는 두팀. 광주가 부산전을 시작으로 무패가도를 달릴 수 있을 지 기대된다.

2012 시즌 광주FC 공격포인트

| 이름 | 골 | 도움 |
|-------|---|----|
| 김동섭 | 6 | |
| 김수범 | | 4 |
| 김은선 | 6 | 1 |
| 박기동 | | 3 |
| 박민 | 2 | |
| 박현 | 2 | |
| 복이 | 4 | 2 |
| 이승기 | 2 | 9 |
| 이한샘 | 2 | |
| 임선영 | 1 | |
| 조우진 | 1 | |
| 주앙파울로 | 6 | 4 |



광주, 승점남을 절호의 찬스가 왔다

자신감 회복에 성공한 광주가 승리를 향한 시동을 걸었다.

광주FC는 오는 4일 밤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25라운드 부산아이파크와 맞대결을 펼친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강원전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기도 0-0으로 비겼다. 광주가 지금까지 보여 준 득점력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다. 광주는 현재 33골을 기록중이며 이는 K리그 16개 구단 가운데 5위에 해당한다. 또 24라운드를 치르며 무득점 경기는 단 3경기 밖에 없었다. 하지만 성과도 있다. 광주는 5경기만에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다. 수비의 핵심 김수범이 경고누적으로 결장한 상태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두경기 연속 무패를 이끌어내며 자신감을 찾았고, 경기력도 날로 좋아지고 있다. 반면 부산은 수비 주축인 김창수, 박종우, 이범영이 올림픽대표팀에 차출되면서 극심한 수비불안에 떨고 있다. 부산은 22라운드 서울과의 경기에서는 6:0 대패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울산전에 1:0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전체적인 플레이를 수비에 치중하면서 공격력이 약해졌다. 실제 최근 3경기의 공격력을 살펴보면 광주는 43개의 슈팅 가운데 20개의 유효슈팅을 때렸고, 3득점했다. 부산은 21개의 슈팅 가운데 8개의 유효슈팅을 기록, 그 중 1득점하는데 그쳤다.

| 경기일자 | 역대 상대전적 |
|------|----------------------------|
| 2011 | 05 / 28 광주 1 : 1 부산 (무) |
| | 09 / 25 광주 2 : 2 부산 (무) |
| 2012 | 03 / 24 광주 2 : 1 부산 (승) |

| 관전 포인트 | 광주 vs 부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 지난 강원전 5경기만에 무실점 이승기 최근 8경기서 공격포인트 7개 기록 광주 3승 제물 부산, 상주, 제주와 3연전 광주FC 홈 승률 37.5%, 원정 승률 33.3% | |



재간동이 '이승기'의 단짝을 찾아라

김은선·박기동·김동섭·주앙파울로와 통산 15골 합작

현재 광주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는 이승기.

지난 6월 17라운드 전남전에서 올 시즌 K리그 첫 도움 헤트 트릭을 기록하며 몸은 쫄 이승기는 이후 7경기에서 7개의 공격포인트(2골 5도움)를 쌓으며 팀의 해결사로 우뚝섰다. 부진에서 탈출한 이승기는 한달여만에 전체 도움순위 2위로 올라서며 지난 시즌 신인상에 이어 도움왕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이는 올 시즌 골 욕심을 버리고 팀을 위해 희생 정신을 발휘한 영향이 크다.

그렇다면 광주의 돌풍을 되살릴 수 있는 이승기의 단짝은 누구일까. 통산 49경기에 출전한 이승기의 공격포인트는 모두 21개(10골 11도움). 이중 동료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찬스를 살려 골망을 흔든 경우는 모두 6번이다. 나머지 15개 가운데 이승기가

도움을 받은 경우는 4번. 11번은 모두 동료들의 골을 도왔다. 돋보였던 콤비 플레이어는 김은선이 다. 둘은 올 시즌 세트플레이 상황에서만 4골을 만들었다. 말대로 이승기가 차면 김은선이 넣었다. 다음은 주앙파울로, 박기동, 김동섭이 3번씩으로 같다. 주앙파울로는 2011년 이승기와 도움을 1개

씩 주고 받았고, 올 시즌엔 1개의 도움을 받아 골을 넣었다. 광주의 초대 캡틴이었던 박기동은 2011년 2번, 2012년 1번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이승기의 도움맨의 역할을 했다. 김동섭은 올 시즌에만 이승기에게 3번의 도움을 받아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정규리그 마지막 6경기에서 누가 이승기와 환상의 콤비플레이로 팀의 돌풍을 이끌지 주목된다.



2011 시즌

| 일시 | 경기 | 득점 | 도움 |
|-------|----------|----------|-------|
| 04/24 | 광주 vs 서울 | 주앙파울로 | 이승기 |
| 05/01 | 광주 vs 대전 | 이승기 | |
| 06/11 | 광주 vs 성남 | 이승기 | 주앙파울로 |
| 07/09 | 광주 vs 강원 | 이승기(2) | 박기동 |
| 07/16 | 광주 vs 전북 | 이승기 | 박기동 |
| 08/27 | 광주 vs 제주 | 이승기, 허재원 | 이승기 |
| 09/17 | 광주 vs 성남 | 이승기 | |
| 09/25 | 광주 vs 부산 | 이승기 | 김수범 |

2012 시즌

| 일시 | 경기 | 득점 | 도움 |
|-------|----------|-------------|--------|
| 03/18 | 광주 vs 제주 | 김동섭 | 이승기 |
| 04/11 | 광주 vs 인천 | 김은선 | 이승기 |
| 04/27 | 광주 vs 전북 | 김은선(2) | 이승기(2) |
| 06/23 | 광주 vs 전남 | 박민, 김동섭, 주앙 | 이승기(3) |
| 07/07 | 광주 vs 대구 | 이승기 | 박기동 |
| 07/14 | 광주 vs 성남 | 김은선 | 이승기 |
| 07/22 | 광주 vs 울산 | 김동섭 | 이승기 |
| 07/26 | 광주 vs 수원 | 이승기 | |

이승기 통산 49경기 10득점 11도움



광주FC U-18 GK 박형민 대표팀 선발

오는 13일 일본 및 스페인과 국제친선대회



광주FC가 산하 유스팀에서 첫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광주FC U-18 금호고 골키퍼 박형민(18)이 7월 30일 U-19 국가대표팀에 선발돼 파주 NFC에서 훈련에 들어갔다. 이번 소집으로 인해 박형민은 광주FC의 창단 이래 첫 유스팀 국가대표가 됐다.

박형민은 13일까지 훈련에 임한 뒤 컨디션에 따라 일본에서 열리는 SBS컵 국제친선대회(8월 14일부터 20일) 또는 스페인 발렌시아 U-20 국제친선대회(13일부터 23일)에 참가하게 된다.

박형민은 올해 금호고의 14회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 우승을 이끈 일등공신이다. 이 대회에서 박형민은 페널티킥 1개를 막아내는 등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무실점 선방하며 광주의 골문을 굳게 지켰고, 금호고는 14년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오르게 됐다. 또 현 챌린지 리그 B조 최소실점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다. 190cm의 장신에 제공권이 좋고, 정확한 킥과 판단력, 반사신경까지 두루 갖춘 박형민은 골키퍼로서는 완벽한 조건을 지녔다.

박형민은 "대표팀 선발에 들뜨기보다 이번 국제친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른 선수들보다 신체조건이 좋은만큼 열심히 노력해 광주뿐 아니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U-19 대표팀은 이번 국제 친선경기를 통해 선수들이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 뒤 오는 11월에 열리는 AFC U-19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광주은행, 광주FC에 후원금 10억원 기탁

GJFC 체크카드 업무협약 등 스포츠발전 앞장

광주은행이 지역 프로축구 발전을 위해 10억원을 기탁했다.

광주FC는 지난 2일 광주은행(행장 송기진)이 프로축구 발전 후원금으로 10억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의 이번 기탁은 지역의 스포츠 문화 확대를 비롯해 프로축구의 발전과 붐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또 지난 6월 광주FC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혜택이 담긴 GJFC 체크카드를 발행하기로 하는 등 스포츠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FC 박병모 단장은 "광주은행과 함께 팬들과 함께 숨쉴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소년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 "많은 시민구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내 기업체와 출향인사 연고기업들을 대상으로 메인스폰서 유치 활동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광주FC의 창단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시민주 공모 당시 1천568명 임직원이 참여, 3천800만원을 청약함과 동시에 10억원을 후원한 바 있다.

축구팬의 완소앱-

축구팬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K리그]

경기일정, 스코어, 생중계/하이라이트까지!

아이폰, 안드로이드 지원 (무료)



광주FC 공식 후원업체
GWANGJU FOOTBALL CLUB SPONSORS

광주광역시

KJB 광주은행

SHINSEGAE

금호리조트

조선대학교병원

청연한방병원

우미건설

joma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백운안과21병원

Bullsone

광주 21세기병원

맑은피부과·성형외과

해양도시가스

지리산산삼

Coca-Cola

VIPS

WATERVIS (주)워터비스

해모수 휘트니스 클럽

한페이카드

Natural Salad & Grill SEVEN SPRINGS

CAPO

mu:m English 뮤엠영어

금호패밀리랜드

(주)시티드라이브 대리운전 1600-7777

중흥S-클래스

명인제약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